

Sister Mary Michael Burns died on October 17, 2022 at age 92. She wrote her introduction before her final illness.



Hello, I am Sister Mary Michael Burns. I was born to John A. Burns and Stella Blatt on July 18, 1930. I was the twelfth child to join the family. Thomas and Patricia followed. We were not blessed to have a Catholic School in our town. My Mom made it an absolute duty to hear the questions and answers of our Baltimore Catechism. Our house was next door to Mater Dolorosa parish rectory and church. I loved our small church. Our public elementary and high school did a fairly good job.

I entered the Novitiate of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September 8, 1948. My older brother, Father John was teaching English at Duquesne University. He was a Holy Spirit priest. My sister Therese graduated from Duquesne University in 1947 and Father Jack offered me the same opportunity as Therese, but I said, "Jack, I want to enter right now." Hence, Sister Therese, who was a year older than I, was three years behind me in the community. She told me that she had "to see if I liked it."



In my ministry work I was honored to teach in seven dioceses. I taught second grade and prepared children for first Reconciliation and Holy Communion. That was another of God's blessings to me. As far as my preparation for teaching, I graduated from Seton Hill College in August of 1961. I received my master'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Arizona. I was asked to do census work in Louisiana, West Virginia, Connellsville, and Mt. Pleasant. I have to say that I loved that assignment as well as teaching elementary school. I was also happy to be missioned, for one year, to teach English conversation at St. Joseph School in South Korea.

Someone may ask how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That is easy. I took the mail to our pastor, brother of our Sister James Regis, one day and Father said he would like to take us to Greensburg. My Mom quietly said, "I've been praying for that." When we went to Greensburg, I petitioned to enter the community. So, for ninety-two years I've had a wonderful life.



2022년 10월 17일에 향년 92세로 선종하신 메리 마이클 번즈Mary Michael Burns 수녀님은 마지막 병석에 들기 전에 이 소개 글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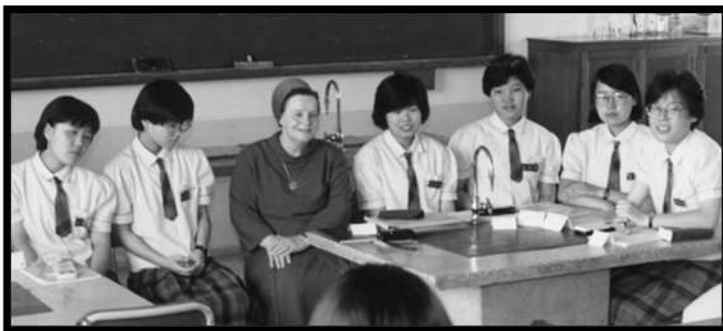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메리 마이클 번즈Mary Michael Burns 수녀입니다. 1930년 7월 18일에 아버지 존 A. 번즈John A. Burns 와 어머니 스텔라 블래트Stella Blatt 슬하에 열두 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뒤로 동생 토마스Thomas 와 패트리샤Patricia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안타깝게도 가톨릭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에게 교리문답 책인 볼티모어 교리교육Baltimore Catechism을 들려주시고 공부시키셨어요. 우리 집은 통고의 성모MaterDolorosa 성당과 사제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성당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닌 공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아주 좋은 학교였어요.

저는 1948년 9월 8일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성령회 사제인 오빠 존John 신부님은 듀케인 대학교Duquesne University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언니 테레스Therese는 1947년에 듀케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잭Jack신부님(존 신부님의 애칭)은 저도 테레스 언니처럼 듀케인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었지만 “신부님, 저는 지금 당장 입회하고 싶어요.”라고 했지요. 언니 테레스 수녀님은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수녀회에는 저보다 3년 늦게 입회했습니다. 언니는 “네가 입회해서 정말 수도 생활을 좋아하는지를 봐야겠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7개 교구에서 가르치며 교육 사도직을 했습니다. 2학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첫 고해성사와 첫영성체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었지요. 이 교직을 준비하기 위해 1961년에 씨튼힐 대학을 졸업하고 애리조나주 투산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코넬스빌, 마운트 플레젠트에서 가톨릭 인구조사를 하는 일에도 파견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이 사도직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 년 동안은 한국의 성 요셉 학교에서 영어 회화 교사로 파견받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했는지 궁금한 분도 계시겠지요.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은 우리 수녀님인 제임스 레지스James Regis 수녀님과 남매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부님께 우편물을 가져갔는데 신부님이 우리를 그린스버그에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가만히 “신부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린스버그에 갔고 저는 수녀회에 입회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92년 동안 저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